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 창설 및 발전방안

임 성 복
호 성 기

연구진

연구책임
연구진

- 임 성 복 /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호 성 기 / 대전발전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목 차 -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픽아드 대회 창설 타당성 검토	14
제1절 대회의 개요	14
1. 대회 개요 및 의의	14
2. 대회 비전 및 필요성	14
3. 대회 세부계획	16
제2절 대회 창설 여건 및 현황 분석	25
1. 태권도와 대전광역시	25
2. 대전광역시 태권도 현황과 시사점	27
3. 지역경제 기대효과	35
제3절 대회 창설 타당성 검토	37
1. 타 지역 개최 국제 태권도대회 사례 분석	37
2. 추진대회 적용 검토	57
제3장 대안적 대회 개최 검토 및 발전방안	61
제1절 대안적 대회 개최 검토	61

1. 대회 창설 과정의 고려사항	61
2. 기존 대회 유치	74
제2절 발전방안	98
1. 대회 효과 극대화 방안	98
2. 대회 차별화 방안	100

제4장 결론 및 제언	105
참 고 문 헌	108
부 록	

- 표 목 차 -

<표 1> 대회 일차별 주요 프로그램 17
<표 2> 소요 예산(안), 7일 기준 22
<표 3> 소요 예산(안), 5일 기준 23
<표 4> 소요 예산(안), 3일 기준 24
<표 5> 체육시설의 구분 27
<표 6> 공공체육시설의 구분 28
<표 7> 전문체육시설 중 체육관 분류기준 28
<표 8> 전국 대비 대전 투기체육관 현황 29
<표 9> 대전광역시 구기체육관 현황 29
<표 10> 대전광역시 태권도 선수 등록 현황 30
<표 11> 대전광역시 태권도 도장 현황 31
<표 12> 광역자치단체 관광사업 숙박시설(호텔) 현황 69
<표 13>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현황 71

- 그림 목 차 -

[그림 1] 연구의 구성 12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의 일환인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픽피아드 대회 창설의 비전 및 발전방안 제시
-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과 관련 창설 대회의 활용·연계 방안 모색
- 효과적인 대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기존 계획내용을 검토·평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방법 모색
- 대전의 정체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방안 마련 시급
-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서 첨단과학기술도시라는 명성과 천혜의 문화관광자원인 유성온천을 간직한 대전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의 태권도 마케팅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
- 대전은 도시브랜드를 이용한 가치 창출이 미약함으로 인해 관광 및 문화 수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필요

- 대전은 1993년 세계박람회 개최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개최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회 창설은 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요

2. 연구의 목적

- 대회 창설의 당위성과 과급효과에 대한 시민홍보
- 정부 및 관련단체 승인 등 국제대회로서의 공신력 확보
- 유소년 세계 태권도 올림픽피아드 대회로 기존 대회와 차별화 방안 모색
- 세계태권도연맹과 공동 개최로 해외 태권도인의 다수 참여 유도로 국제화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태권도 종주국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경제 과급효과 제고 및 홍보 효과 극대화
- 경기 위주의 대회에서 탈피한 복합 페스티벌 대회 개최로 전시민의 참여 유도 및 전 세계인과 함께 하는 태권도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전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세계 문화교류의 장 마련
- 대회의 개최 효과가 지역사회의 내부 활력과 연동되고 그 영향력이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도록 지원

- 대회 창설과 관련된 현실적인 추진 환경에 기초하여 대회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범위 모색
- 성공적인 대회 창설의 추진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관련 계획의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세부적 계획 수립 또는 대안적 토대 마련
- 태권도 중주국의 국가적 위상을 굳건히 하고 한국의 대표 문화브랜드인 태권도를 활용한 대전의 스포츠�관광 명소화 전략을 수립하는 전환점 마련
- 무주 태권도 공원과의 지역 간 기능 연계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마케팅에 기여하고, 국제 스포츠도시로서 대전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로써 대회 창설을 위한 방안 모색
-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태권도 경기 시설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능력과 시설관리능력이 필요
-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선수 및 태권도 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형성
- 연구는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픽아드 대회 창설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기본적 전략을 제시하여 태권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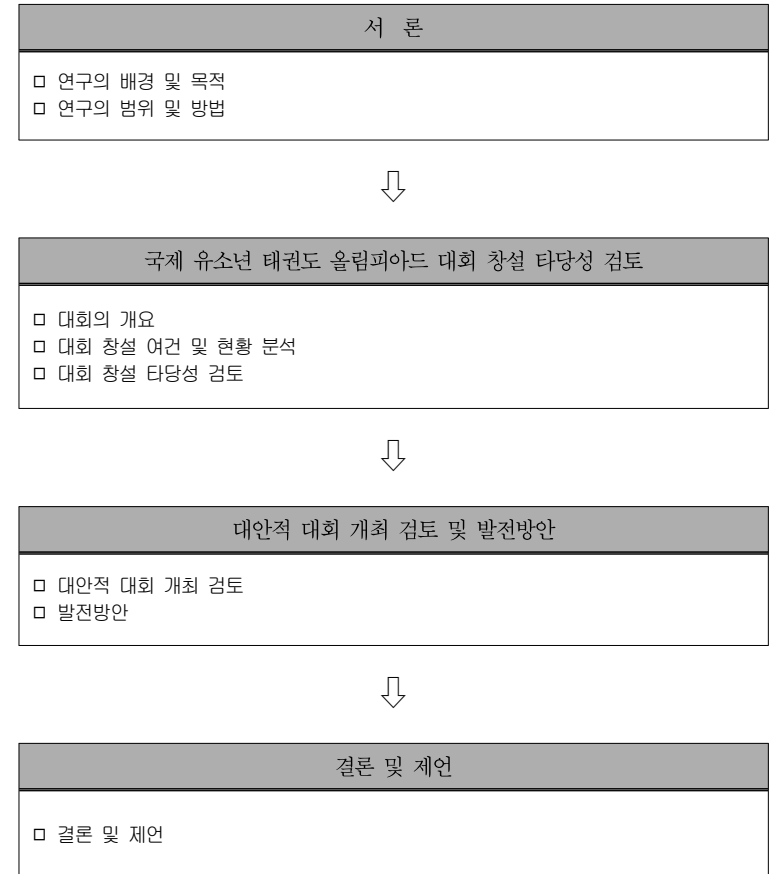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년 6월 21일 ~ 2011년 8월 16일
-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일원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첫째, 대회 개최에 대한 이해 및 실태를 중심으로, 대회 창설과 관련된 제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였다.
 - 둘째, 대회 창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대회의 지역경제 기대효과 및 시너지 극대화 방안 등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관련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관계자 면담과 관계기관·관련협회 관계자 토론회 및 면담 등을 통해 대회 창설 추진의 쟁점과 기본 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 및 추진 방향 설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을 재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회 창설에 대한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문헌연구는 태권도 단체 및 연구기관들의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 또한 타 시·도 관련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 등을 방문하여 참조 자료를 얻고 필요한 관련 이미지를 직접 촬영하였다.
- 관계자 토론 및 면담
 - 연구를 위하여 타 시·도 자치단체 담당자,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면접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1) 연구의 구성



제 2 장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 창설 타당성 검토

제1절 대회의 개요

제2절 대회 창설 여건 및 현황 분석

제3절 대회 창설 타당성 검토

제2장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 창설 타당성 검토

제1절 대회의 개요

1. 대회 개요 및 의의

□ 대회 개요

세계 191개국 7,000만 명의 태권도 수련생을 기반으로 “Taekwondo for World Peace(세계 평화를 위한 태권도)”를 주제로 한 기존 대회와는 차별화된 전 세계 유소년 중심의 태권도 축제이며, 경기 위주의 대회에서 탈피한 복합 페스티벌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회 의의

세계 최초의 유소년 및 가족 대상 국제 태권도 대회이자 축제로, 외국 국적의 태권도인들이 대거 방문하고 외국 참가자 대상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대 시민 축제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세계 속의 대전이라는 홍보효과와 자긍심 고취

2. 대회 비전 및 필요성

□ 대회 비전

- 태권도 종주국 한국의 중심, 대전에서 전 세계 태권도인 화합과 축제의 장 마련
- 기존 대회와는 차별화 된 세계화된 유소년 중심의 세계 최초 축제로 매년 지속 개최
- 세계 속의 대전이라는 시정 방향 달성에 부합된 기폭제 제시

□ 대회 필요성

- 2013년 대전을 세계중심도시로 하기 위하여 해외 참가자의 대거 지역 방문 유도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태권도 축제를 매개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전의 첨단과학을 알릴 수 있는 토대 마련
- 대회 개최를 계기로 교통·과학·행정·관광 중심도시인 대전의 위상 회복을 도모하고, 대전의 국제적 위상확립과 태권도관광 활성화에 기여
- 대덕연구단지특구로 대표되는 한국 과학기술의 중심인 동시에 세계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적으로도 역량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도시이나, 이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적·지역적 손실 만회

3. 대회 세부계획

□ 행사 개요

- 대회명칭 :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 기 간 : 2013년 8~9월, 7일간
- 장 소 : DCC(대전컨벤션센터), 충무체육관, 한밭체육관
- 주 최 : 대전광역시,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 주 관 :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 후 원 : 대전광역시,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전MBC
- 규 모 : 4,000명(해외 30여 개국 1,000명)
- 주 제 : Taekwondo for World Peace(세계 평화를 위한 태권도)

□ 행사 세부 내역

<표 1> 대회 일차별 주요 프로그램

일차별	시간	행사내용	참가자 (해외)	비고
1일차(토)	19:00~21:30	개막식 및 개막 공연 -시범단 공연, 유명 가수 공연	5,000 (1,000)	무역전시관
	전일	전시준비	-	DCC 1층 로비
2일차(일)	전일	문화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500 (300)	지역 내 쇼핑 투어 백제문화, 한옥마을
	07:00~17:00	수련 프로그램	100 (100)	장태산 자연휴양림 계룡산 일대
	09:00~18:00	등록 및 경기 대회 준비	2,000 (1,000)	DCC 1층 로비
	전일	전시준비	-	DCC 1층 로비 등
3일차(월)	08:00~09:00	등록 및 대회 설명	2,000 (1,000)	DCC 전시홀
	09:00~17:00	경기 대회 개최 1 대한태권도, 세계태권도연맹	5,000 (1,000)	DCC 전시홀 중회의장
	18:00~21:00	환영리셉션 환영공연(전통공연, B-boy)	1,300 (800)	DCC 그랜드볼룸
	전일	태권도 문화 및 장비 전시	5,000 (1,000)	DCC 1층 로비
4일차(화)	08:00~09:00	등록 및 대회 설명	2,000 (1,000)	DCC 전시홀
	09:00~17:00	경기 대회 개최 2 대한태권도, 미국태권도	5,000 (1,000)	DCC 전시홀, 그랜드볼 룸, 중회의장
	전일	문화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300 (200)	지역 내 쇼핑 투어 백제문화 체험 등
	전일	태권도 문화 및 장비 전시	5,000 (1,000)	DCC 1층 로비

5일차(수)	08:00~09:00	등록 및 대회 설명	2,000 (1,000)	DCC 전시홀
	09:00~17:00	경기 대회 개최3 대한태권도, 세계태권도연맹	5,000 (1,000)	DCC 전시홀 중회의장
	14:00~18:00	태권도 올림피아드 세미나1	300 (100)	DCC 3층 301호
	전일	문화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300 (200)	지역 내 쇼핑 투어 백제문화 체험 등
	전일	태권도 문화 및 장비 전시	5,000 (1,000)	DCC 1층 로비
6일차(목)	08:00~09:00	등록 및 대회 설명	2,000 (1,000)	DCC 전시홀
	09:00~17:00	경기 대회 개최4 대한태권도, 세계태권도연맹	5,000 (1,000)	DCC 전시홀, 그랜드볼 룸, 중회의장
	14:00~18:00	태권도 올림피아드 세미나2	300 (100)	DCC 3층 301호
	전일	문화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300 (200)	지역 내 쇼핑 투어 백제문화 체험 등
	전일	태권도 문화 및 장비 전시	5,000 (1,000)	DCC 1층 로비
7일차(금)	08:00~09:00	등록 및 대회 설명	2,000 (1,000)	DCC 전시홀
	09:00~17:00	각 경기 결승전 개최	5,000 (1,000)	DCC 전시홀, 그랜드볼 룸, 중회의장
	18:00~21:00	시상식 및 폐막식 -각 경기 우승자 시상식 - 태권인의 밤(퀘어웰파티)	800 (500)	DCC 그랜드볼룸
포스트투어	09:00~18:00	문화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500 (300)	지역 내 쇼핑 투어 백제문화, 한옥마을

□ 주요 행사 세부 프로그램

○ 개막식 및 개막공연

■ 전세계 태권도인이 하나될 수 있는 어울림 마당

■ 개막식을 대전시민과 전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대형 콘서트 형태로 개

최하여 대회 및 대전 홍보 효과 극대화

■ 태권도 관련 주요 VIP 대거 참가로 대회 품격 격상

○ 태권도 경기 대회

■ 세계연맹의 경기 규정에 따른 대회 개최 : 3일간

■ 한국, 미국 공동 참가 친선 경기 개최 : 1일간

■ 각 경기 결승전 개최 : 대회 마지막 날

→ 세계연맹규정 준수 대회 및 경연 동시 개최

○ 환영 리셉션

■ 국내외 선수단 등 대회 정식 등록자 대상 대전광역시 주재 리셉션 개최

■ 주요 참가자인 유소년에게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공연 가미

■ 대전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 및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의 대전 지속 개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문화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 2013 대전을 방문한 해외선수단에게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문화체험 및 대전 지역 유명 관광지 방문 적극유도

■ 해외 선수단 및 가족의 경우, 참가 대회일을 제외하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상시 운영

■ 고급화된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유료 운영으로 경제 파급효과 제고

→ 한국의 중심, 대전으로의 연중 재방문 유도 가능

○ 전시 및 세미나

■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과 다양한 색깔의 외국 태권도 문화와 장비물을 대회 기간 전시하여 태권도인 및 대전시민 대상 체험 전시회 운영

■ 태권도 세계화와 올림픽 경기 지속 채택 등 세계속의 태권도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태권도 세계화의 중심,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지속 홍보

○ 수련 프로그램

■ 해외 참가자 대상 한국의 산수를 배경으로 수련 프로그램 운영

■ 태권도 종주국 한국의 풍수와 얼을 새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미국태권도협회의 연중 대전 방문 유도 프로그램으로 활용

○ 폐막식 및 페어웰 파티

■ 각 종목별 우승자 시상식

■ 대전광역시,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업무협약식 개최

■ 주요 참가자 대상 페어웰 파티 개최

→ 세계 유소년 태권도인 화합의 장, 대전 개최 정착(협약식)

□ 소요 예산

○ 기본 방향

- 경기대회 등 각 협회 단독 주관 행사는 각 협회 예산으로 별도 운영
 - 개막식, 폐막식, 문화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등 공동 행사는 각 협회 공동 예산으로 운영
-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의 경우, 기업 후원금 확보시 협회 예산으로 간주
- 대전시에서의 지속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차원의 행사 지원은 대전광역시 예산지원(행사장 임차료, 대전내 참가자 수송, 대전 내 홍보, 환영 리셉션 및 해외 심판 초청비 등)

<표 2> 소요 예산(안), 7일 기준

(단위 : 천원)

수입	금액	비고	지출	금액	비고
등록비	500,000	해외태권도	태권도 경기대회	675,000	심판초청 등
	150,000	국내태권도	태권도 경기대회	65,000	심판초청 등
문화체험·투어	80,000		행사장 임차료	45,700	
전시회	25,000		장비 및 비품 임차료	12,120	
스폰서	765,000		각종 연회 행사·공연	210,000	
			전시회	15,000	부스 설치
			투어 및 수송	52,500	
			광고선전비	103,000	홍보물제작 등
			경기장 조성 비용	70,000	
			인건비	104,700	기획사,운영요원
			체제비	21,000	
			지급수수료	44,000	보험, 사진촬영
			용역수수료	71,980	
			예비비	30,000	
합계	1,520,000		합계	1,520,000	

<표 3> 소요 예산(안), 5일 기준

(단위 : 천원)

수입	금액	비고	지출	금액	비고
등록비	435,000	해외태권도	태권도 경기대회	525,000	심판초청 등
	130,500	국내태권도	태권도 경기대회	58,000	심판초청 등
문화체험·투어	69,600		행사장 임차료	43,200	
전시회	21,750		장비 및 비품 임차료	12,120	
스폰서	660,050		각종 연회 행사·공연	210,000	
			전시회	15,000	부스 설치
			투어 및 수송	37,500	
			광고선전비	103,000	홍보물제작 등
			경기장 조성 비용	70,000	
			인건비	86,100	기획사,운영요원
			체제비	15,000	
			지급수수료	40,000	보험, 사진촬영
			용역수수료	71,980	
			예비비	30,000	
합계	1,316,900		합계	1,316,900	

참조 : 대회기간 7일에서 5일로 변경 시 예산 13.36% 줄어듦

<표 4> 소요 예산(안), 3일 기준

(단위 : 천원)

수입	금액	비고	지출	금액	비고
등록비	370,000	해외태권도	태권도 경기대회	375,000	심판초청 등
	111,000	국내태권도	태권도 경기대회	46,800	심판초청 등
문화체험·투어	59,200		행사장 임차료	38,200	
전시회	18,500		장비 및 비품 임차료	12,120	
스폰서	559,600		각종 연회 행사·공연	210,000	
			전시회	15,000	부스 설치
			투어 및 수송	22,500	
			광고선전비	103,000	홍보물제작 등
			경기장 조성 비용	70,000	
			인건비	78,700	기획사,운영요원
			체제비	9,000	
			지급수수료	36,000	보험, 사진촬영
			용역수수료	71,980	
			예비비	30,000	
합계	1,118,300		합계	1,118,300	

참조 : 대회기간 7일에서 3일로 변경 시 예산 26.42% 줄어듦

제2절 대회 창설 여건 및 현황 분석

1. 태권도와 대전광역시

- 세계적인 과학기술 중심도시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특구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상징되는 한국 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 1993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적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도시
- 온천관광특구인 유성은 국제적인 관광인프라를 갖춘 문화관광지로서 온천, 호텔, 유스호스텔, 모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어 대회 기간 동안의 방문객 수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철도·고속도로·항공 등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
 - 철도 : 서울 ~ 대전(50분, KTX 기준)
 - 고속도로 : 서울 ~ 대전(1시간 50분)
 - 항공 : 청주공항 ~ 대전(40분)



세계적인 과학기술 중심도시 대전광역시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적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도시, 국제적인 관광인프라를 갖춘 문화관광도시

- 대전은 정체된 국제적 도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방안 마련 시급
- 대전은 훌륭한 도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자원들이 대부분 기능적인 부분에 치우친 탓으로 도시브랜드를 이용한 가치 창출이 미약함
-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관광 및 문화 수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관광 목적지로서 대전의 정체성 확립에 태권도 국제대회가 기여
-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서 첨단과학기술도시라는 명성과 천혜의 문화관광자원인 유성온천을 간직한 대전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의 태권도 마케팅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

2. 대전광역시 태권도 현황과 시사점

1) 태권도 시설 현황

<표 5> 체육시설의 구분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자료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1

-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로 정의할 수 있음
- 체육시설은 건전한 신체·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국민체육진흥법)로 시설형태에 따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으로 구분

<표 6> 공공체육시설의 구분

체육시설구분	정의
전문체육시설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을 대상으로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함)

자료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1

- 공공체육 시설과 민간체육 시설은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로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목적에 따라 전문체육 시설, 생활체육 시설, 직장체육 시설로 나눌 수 있음

<표 7> 전문체육시설 중 체육관 분류기준

체육관 분류	정의
구기체육관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 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투기체육관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검도, 씨름, 체조, 역도 등 투기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생활체육관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과 수영, 볼링, 에어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 종목의 각종 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

자료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1

<표 8> 전국 대비 대전 투기체육관 현황

구분	전국		대전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합계	640	14,925,590	17	283,846
구기체육관	278	8,030,476	7	46,329
투기체육관	39	217,006	0	0
생활체육관	323	6,678,107	10	237,517

자료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1

- 전국의 전문체육시설 중 체육관은 총 640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대전은 17개소로 전국 대비 2.66%의 비율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대전은 태권도 경기 개최가 가능한 투기체육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대전광역시 구기체육관 현황

(단위 : m², 명)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재료	좌석수	수용인원	준공연도	가능종목
동구생활체육관	1521	489	목재	200	400	1992	배드민턴,배구,탁구
인동생활체육관	2341	1,241	목재	150	650	2002	배드민턴,배구,탁구
충무체육관	5071	4,603	목재	4,510	5,960	1970	핸드볼,배드민턴,탁구,태권도,레슬링,권투
한밭체육관	7,878	3,733	목재	1,226	2,000	1994	태권도,유도,복싱,핸드볼,배구
산성생활체육관	323	323	목재			1995	배드민턴
도솔다목적체육관	20,295	3,691	목재	984		2002	탁구,배구,농구,배드민턴
대덕문화체육관	8,900	3,005	목재	645	1,000	1997	배드민턴,탁구,농구,배구

자료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1

- 대전광역시는 태권도 경기가 가능한 구기체육관이 2개소로, 중구 소재의 충무체육관, 중구 소재의 한밭체육관 등이 있으며, 이들 체육관은 모두 대전광역시 소유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충무체육관은 1970년 준공되어 신설 체육관에 비해 낙후되었지만, 규모와 시설 면에서 대전시민의 중요한 전문체육시설로 역할을 하고 있음

2) 태권도 인력 현황

- 대전광역시에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서 등록된 선수 수는 2010년 12월말을 기준하여 245명으로 남성 179명, 여성 66명이며, 축구(547명), 궁도(27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표 10> 대전광역시 태권도 선수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초등학교	50	6	56
중학교	42	22	64
고등학교	67	27	94
대학교	12	11	23
일반	8	0	8
합계	179	66	245

자료 : 대전광역시체육회, 2010. 12

- 등록된 선수 수는 초등학교 등록선수는 56명, 중학교는 64명, 고등학교는 선수 수가 증가하여 94명, 그러나 대학교 선수 수는 급격하게 줄어 23명, 일반부는 8명에 불과함
- 이는 지속적인 학업과 운동관리가 이루어질 대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대학 졸업 후 전문적인 선수로 활동할 실업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대전광역시의 태권도 실업팀은 모두 2개 팀이 있으며, 대전광역시체육회 3명, 유성구청 5명이 등록되어 있음

<표 11> 대전광역시 태권도 도장 현황

(단위 : 개소, m², 명)

구분	도장수	총면적	전용면적	지도자배치		
				1급	2급	3급
동구	51	6,555.90	6,555.90			51
중구	47	6,838.08	5,812			47
서구	96	13,739	10,276			96
유성구	66	10,982.91	8,181.57		2	68
대덕구	37	5,896.42	4,538.21			37
합계	297	44,012.31	35,363.68		2	299

자료 :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1

- 대전광역시에 등록·신고된 태권도 도장은 모두 297개소로, 이중 대전광역시 태권도협회에 공식 등록된 공인도장은 약 250여 개소이며, 현재 대전광역시 태권도협회에 상임심판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37명임
- 태권도 도장의 지도자 배치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3급 지도자에 치우쳐 있고 인원수도 적은 편으로, 이는 태권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태권도의 저변화 및 활성화라는 취지가 먼 것으로 보임

3) 태권도 관련조직 현황

- 태권도와 관련된 대표적 조직은 대전광역시체육회와 그 산하 각 가맹경기단체,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등이 있음
- 대전광역시체육회는 현재 50개의 가맹경기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부는 회장 1명, 대의원 43명, 부회장 8명, 이사 31명, 감사 2명 이며, 사무처장 1명, 총무부 7명, 경기운영부 4명, 체육진흥부 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전광역시체육회의 2011년도 사업목표는 대전을 체육중심 도시로 자리잡고, 시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2011년도 예산은 지난해 보다 3.49% 증가한 99억 8700만원으로 확정됨
-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임원진은 회장 및 부회장단 10명, 전무이사 1명, 이사 9명, 감사 2명 등 재적인원 22명이고, 기술전문위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단 4명과 경기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의 분과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의 상근인력은 3명이며, 주요 업무는 선수육성과 관련된 업무, 선수등록 업무, 평가대회 준비 및 대회 운영, 대회 대비 훈련주도, 국내 각종 체전 신청업무 등임

4) 시사점

□ 경기의 수준

- 유소년 태권도의 활성화는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시민 통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태권도의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 태권도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음

-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수준이 요구되며, 유소년 선수 육성을 통해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이들을 선수로 육성하고 전문적이고 우수한 지도자를 초빙 혹은 교육함으로써 경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대회 운영 및 진행 수준

-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기본 조건은 우수한 유소년 선수를 발굴하고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 외에 과학적인 훈련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며, 또한 미비한 시설을 보충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점검 보수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시설은 선수들만이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개방되어 생활체

육으로서 태권도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설의 체계적 관리는 국제대회 개최 시 주요 인프라로 즉시 활용 가능함

- 우수한 경기 운영 및 진행 능력은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자부심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경기를 통해 성숙한 시민 의식과 태권도에 대한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향후 메이저 국제대회 유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로 환원될 수도 있음

□ 태권도 관련 조직 지원 및 육성

- 경기수준과 경기 운영 및 진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기존 관련 조직을 보완·정비하고 부족한 재정 환경을 지원하는 것은 태권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함

□ 태권도 관련 중장기 계획수립 및 재정확보

- 태권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선수의 경기수준뿐 아니라 경기운영 및 진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 및 육성 활동 관련 단체 및 기구에 대한 지원·육성 활동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에 따르는 자원 확보가 중요 관건임

- 우수한 유소년 선수 발굴 및 우수한 지도자를 교육하고 육성하여 경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시설 점검 및 확충, 효율적 경기운영 및 진행 능력의 향상, 태권도 발전을 위한 관련 조직의 지원 및 개편 등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태권도의 활성화와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 지역경제 기대효과

1) 지자체에 미치는 기대효과

- 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개선으로 인한 타 행사 유치 확대
- 시설 인프라 확충 : 대회 시설 장소, 교통, 숙박시설 제반 시설 확충
- 지자체 고유의 축제 브랜드화 구축
-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 유치로 인한 지자체의 이윤 창출
- 관광 투어 및 지자체 특산품 등의 마케팅 효과
-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자체 및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 지자체 이미지 홍보로 인한 지자체 가치 상승효과
- 지자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애향심 상승효과
- 국제 대회 유치에 따른 지자체의 경험 축적
- 스포츠 문화 산업 육성의 발판 마련
- 태권도 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문화 산업의 메카로서의 발전 효과

2) 경제적 파급효과(세계태권도한마당 기준)

- 대회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에 의한 직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 참가자 1인당 평균 지출비용 : 173,201원, 체제일수 5일 기준
- 지역내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오락 및 유흥비, 쇼핑비로 지출
- 총 소비지출액 10억 원 이상
- 대회 개최에 따른 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 소득, 부가가치 유발효과 : 30억 원 이상
- 19명의 고용창출 및 39명의 취업창출 효과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자체 브랜드 노출 및 홍보효과
- 대회 A보드 광고 등 노출효과 1억 8천만 원, 1일 기준(코리아오픈 기준)



유치지역 투자비 5억 <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 40억 이상

제3절 대회 창설 타당성 검토

1. 타 지역 개최 국제 태권도대회 사례 분석

1)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 대회 개요

○ 대회 목적

- 시민과 함께하는 대회운영으로 지역의 세계화
- 관광·문화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 경기문화 발전을 통한 인기 종목 정착

○ 장소 : 강원도 춘천시

○ 주최주관 : 춘천시/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 후원기관 :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강원도, 대한태권도협회, 강원도태권도협회, 춘천시태권도협회, 농협, 신한은행

○ 공식행사

구 분	내 용
개막식	◦ 전통무용, 태권도퍼포먼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시범, 단체전 5인조 경기시범
환영리셉션	◦ 공로패·감사패 전달, 만찬사, 케익절단, 만찬
폐막식	◦ 시상 및 폐회, 어울마당, 송별연

○ 부대행사

구 분	내 용
문화행사/ 경기장외부(1일1회)	◦ 전통다과 시음, 닭갈비·막국수 시식, 떡만들기
여흥프로그램/ 경기장내(1일 1회)	◦ 사물놀이, 아라리난타, 전통민요
전시판매/ 경기장외부(41개동)	◦ 태권도·스포츠용품 전시판매, 식당 등
시민홍보 이벤트/ 브라운 상가	◦ 태권도시범, 격파, 태권도퍼포먼스
태권갈라쇼/ 경기장 메인무대	◦ 태권도시범, 격파, 품새, 태권퍼포먼스, 5인조 겨루기
시티투어 운영	◦ 희망선수단

□ 대회 소요예산

역대 최소 예산으로 대회 운영(2011년) : 4.5억
 최대(2004년) : 7.4억, 평균(2000년~2009년) : 5.6억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최소 20억 : 숙박 10억, 항공료 10억 발생 추정

□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역대 참가현황 분석(1~8회)

구 분	횟차	기간(일수)	참 가 규 모	
			참가국	참가내용
코리아 오픈 춘천국제 태권도대회	1회('00)	2000. 06. 24 ~ 07. 01 (8일간)	48개국 1,421명	(임원416, 선수1,005)
	2회('01)	2001. 06. 27 ~ 07. 02 (6일간)	54개국 1,621명	(임원437, 선수1,184)
	3회('02)	2002. 08. 14 ~ 08. 19 (6일간)	56개국 1,772명	(임원421, 선수1,351)
	4회('03)	2003. 10. 04 ~ 10. 07 (4일간)	42개국 1,119명	(임원224, 선수895)
	5회('05)	2005. 06. 26 ~ 07. 01 (6일간)	51개국 1,589명	(임원325, 선수1,264)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6회('07)	2007. 06. 29 ~ 07. 04 (6일간)	46개국 2,177명	(임원416, 선수1,761)
	7회('09)	2009. 07. 10 ~ 07. 15 (6일간)	45개국 2,379명	(임원461, 선수1,918)
	8회('11)	2011. 07. 14 ~ 07. 19 (6일간)	45개국 2,894명	(임원609, 선수2,285)

□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자체 추진 성과 분석

- 10여년 운영 경험과 세계적 인지도 축적
- 역대 최대 선수·임원 참가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연예인 공연 등 홍보성 행사 배제 ⇒ 최소 사업비로 운영
-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협력 경기 운영 ⇒ 대회 위상제고
- 겨루기 5인조 단체전, 브라운 5번가 이벤트, 태권도 갈라쇼 등 ⇒ 대회와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 추구
- 2000년부터 12년 동안 8회에 걸쳐 대회 개최 결과
 - 대회 평균 : 48개국 1,872명(외국 881, 내국 991) 참가
 - 대회 누계 : 387개국 14,972명(외국 7,047, 내국 7,925) 참가
- 대회를 통한 춘천의 세계적 인지도 향상
- 세계 태권도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 국기 태권도의 세계화에 공여
- 관광자원화, 태권도 관련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최소 비용으로 언론 홍보 추진
 - GBN 등 지역 언론매체 활용 홍보
 - GTN 등 태권도 전문매체 활용
- 대회 관람, 저소득국가 자매결연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 시켜 세계 태권도인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

□ 2009년 제7회 대회 등록현황

연번	국 가	합 계	임 원	선 수		
				소 계	남 자	여 자
1	Aruba	2	1	1	1	
2	Australia	49	17	32	22	10
3	Bahrain	3	1	2	1	1
4	Belarus	1	-	1	-	1
5	Belgium	8	1	7	5	2
6	Canada	3	1	2	2	-
7	China	80	17	63	46	17
8	Chinese Taipei	16	3	13	9	4
9	Congo	2	1	1	1	-
10	Croatia	2	1	1	-	1
11	Egypt	19	3	16	12	4
12	France	7	1	6	5	1
13	Germany	12	3	9	6	3
14	Greatbritain	27	9	18	11	7
15	Greece	14	5	9	7	2
16	Hongkong	39	8	31	18	13
17	Iceland	1	-	1	1	-
18	India	7	1	6	3	3
19	Indonesia	19	8	11	8	3
20	Iraq	9	3	6	5	1
21	Italia	1	-	1	1	-
22	Japan	83	20	63	43	20
23	Kazakhstan	60	18	42	33	9
24	Kuwait	2	1	1	1	-
25	Laos	9	3	6	3	3
26	Mexico	28	7	21	12	9
27	Mongolia	4	-	4	4	-
28	Netherlands	10	2	8	6	2
29	Newzealand	4	1	3	3	-
30	Norway	9	1	8	4	4
31	Pakistan	3	1	2	2	-
32	Russia	216	58	158	130	28
33	Saudi Arabia	14	7	7	4	3
34	Scotland	5	1	4	4	-
35	South Africa	16	5	11	7	4
36	Spain	11	9	2	2	-
37	Sweden	5	2	3	2	1
38	Thailand	34	7	27	14	13
39	Tunisia	4	1	3	3	-
40	Turkey	6	2	4	3	1
41	United Arab Emirates	2	-	2	-	2
42	U.S.A	1	-	1	-	1
43	Venezuela	19	4	15	8	7
44	Vietnam	5	2	3	3	-
	해 외	871	236	635	455	180
45	Korea	1,508	225	1,283	1,010	273
계	45개국/242개클럽	2,379	461	1,918	1,465	453

□ 2011년 제8회 대회 등록현황

	국가명	팀수	계	임원	선수		
					소계	남	여
	합계	288	2,894	609	2,285	1,622	663
	해 외 계	103	1,337	381	956	651	305
1	ALGERIA	1	14	2	12	8	4
2	AUSTRALIA	2	18	6	12	7	5
3	AUSTRIA	1	1	1	-	-	-
4	AZERBAIJAN	1	5	1	4	-	4
5	BAHRAIN	1	14	3	11	6	5
6	BRUNEI	2	13	5	8	4	4
7	CAMBODIA	1	4	2	2	-	2
8	CANADA	2	55	19	36	24	12
9	CHINA	13	117	29	88	62	26
10	CHINESE TAIPEI	1	57	14	43	26	17
11	COLOMBIA	1	2	-	2	1	1
12	EGYPT	3	35	8	27	16	11
13	ENGLAND	2	17	7	10	9	1
14	FRANCE	2	10	1	9	6	3
15	GUATEMALA	1	2	1	1	-	1
16	HONG KONG	1	7	2	5	3	2
17	INDIA	2	20	4	16	12	4
18	INDONESIA	7	113	31	82	43	39
19	IRAQ	3	29	14	15	15	-
20	ITALY	1	1	-	1	1	-
21	JAPAN	3	107	23	84	53	31
22	JORDAN	3	19	4	15	9	6
23	KAZAKHSTAN	5	119	33	86	69	17
24	KUWAIT	1	13	3	10	-	10
25	KYRGYZSTAN	1	13	3	10	10	-
26	MEXICO	1	52	11	41	22	19
27	MOROCCO	1	1	-	1	1	-
28	NETHERLANDS	1	1	-	1	1	-
29	NORWAY	1	1	-	1	1	-
30	PAKISTAN	2	11	2	9	9	-
31	PUERTO RICO	1	2	-	2	2	-
32	RUSSIA	13	290	102	188	145	43
33	SAKHA	1	16	3	13	9	4
34	SAUDI ARABIA	1	8	5	3	2	1
35	SCOTLAND	1	2	1	1	1	-
36	SOUTH AFRICA	1	5	1	4	3	1
37	SPAIN	2	16	7	9	7	2
38	SYRIA	1	7	2	5	5	-
39	THAILAND	3	43	12	31	18	13
40	TUNISIA	1	10	2	8	5	3
41	TURKEY	2	7	2	5	3	2
42	UNITED ARAB EMIRATES	1	7	2	5	4	1
43	UNITED STATES	6	27	8	19	13	6
44	UZBEKISTAN	2	26	5	21	16	5
45	KOREA	185	1,557	228	1,329	971	358

□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자체 추진 성과 분석

- 2000년도에 창설해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전체 참가자 중 해외 참가자가 50%에 육박하는 명실상부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라고 평가
-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참가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하는 타 국제대회와는 달리 2005년 제5회 대회부터 참가자들은 전원 자비를 들여 참가, 숙식을 비롯한 체류, 관광, 쇼핑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국제대회라고 평가
- 국제적으로 춘천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기 활성화와 태권도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
-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춘천을 대한민국의 태권도 종주도시로 자리매김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회라고 평가

□ 대회 전반에 대한 분석

- 시민들의 대회에 대한 열기가 낮아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는 국제대회라는 문제점
- 태권도 종주국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외국 선수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했다는 지적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 행사를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속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과 자치단체 지원의 한계

○ 태권도 종주국을 배우려는 외국 선수단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갈 것인가, 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의 기대치는 어떻게 충족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음

○ 저예산으로 인해 춘천시를 홍보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대행사에 미비점 노출

○ 역대 최대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국제대회로 설명하고 있으나,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 대회라고 발표한 2009년 7회 대회 등록현황과 2011년 8회 대회 등록현황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함

- 2009년 7회 대회의 경우 해외 선수단의 임원 포함 참가 인원이 5명 이하인 국가가 15개국으로 전체 45개 참가국 중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선수단 중 30인 이상 참가한 국가의 비중이 7개국 총 561명으로 전체 인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러시아 216명, 일본 83명, 중국 80명, 카자흐스탄 60명 등과 같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임원 없이 선수만 등록된 경우도 6팀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회 대회 경우 해외 선수단의 임원 포함 참가 인원이 5명 이하인 국가가 10개국으로 전체 45개 참가국 중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선수단 중 30인 이상 참가한 국가의 비중이 10개국 총 9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러시아 290명, 카자흐스탄 119명, 중국 117명, 인도네시아 113명, 일본 107명 등과 같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선수 없이 임원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1팀이 있었으며, 임원 없이 선수만 등록된 경우도 6팀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태권도대회 중 대표적으로 성공한 국제대회로 인정받고 있는 대회이지만, 전체적인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 선수단의 질적 문제와 전체적인 대회의 내용면보다 대회의 양적 확장 측면을 중시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이유로는 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식어가고 있

는 현실적인 문제와 10여 년 이상 지속한 대회의 유지를 위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에 춘천을 알린다는 취지의 극대화 차원에서 대회의 양적규모를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짐

- 다양한 공식행사와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순수한 태권도인들만의 축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태권도를 통한 문화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최하고 있는 국제대회라는 화려한 타이틀에 가려진 관 주도 행사와 즉흥행사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 대두
- 대회 홍보 및 선수유치의 어려움
- 각국 협회·국제대회 등 공식홍보 채널을 통한 대회홍보 및 선수유치 강화가 필요하나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특정 개별 인맥에 의존한 참가 선수확보의 어려움 심화
- 예산과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국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홍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강원지역 민방을 위주로 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
- 선수유치 또한 개별 인맥을 통한 방법과 자매결연을 통한 자발적인 참가지원에 의존하는 현실로 대회조직위원회의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대회방향 설정이 어려운 실정

○ 자비 참가가 가능한 경제력이 있는 국가의 선수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인한 선수유치의 구성 및 대회 질적 부분 저하 초래

○ 대회 품위와 위상을 위하여 WTF 승인대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WTF 및 KTA 규정 준수에 따른 소요예산의 부담으로 비공인 대회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대회 홍보 및 선수유치의 한계 노출



○ 국내에서 개최되는 태권도대회 중 대표적으로 성공한 국제대회로 평가 받고 있는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도 10여 년 동안의 대회경험과 인지도 축적으로 인해 기반이 비교적 탄탄히 다져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할 때 홍보와 선수유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자치단체에서 대회 개최의 긍정적 효과와 국제대회로서 자리가 잡힌 대회 이다보니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저예산으로 인해 대회홍보 및 선수유치, 부대행사 준비 미흡, 시민들과 연계되지 못하는 행사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

2) 무주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 대회 개요

○ 대회 목적

-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 제고
- 세계문화관광 유산이 될 태권도공원조성 홍보
- 엘리트 체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참여가 가능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외 태권도인의 교류증진 및 체험기회 제공

○ 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 주최주관 :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 후원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

구 분	내 용
개막식	◦ 축하공연, 태권도 퓨전 공연 등
공식행사	◦ 태권도 경연대회(폼새), 태권도 경연대회(겨루기, 격파), 태권도 A매치 대회(폼새, 겨루기) 등
부대행사	◦ 태권도 폼새 세미나, 태권도 겨루기 세미나, 태권도 시범 세미나(호신술, 격파, 태권체조 등), 낙화놀이 및 불꽃놀이, 대동 한마당 체험 등
폐막식	◦ 환송만찬 및 감사패 전달

□ 예산운영

- 2011년 제5회 대회 예산 : 7.5억

□ 대회 역대 참가현황 분석

구 분	횟차	기간(일수)	참 가 규 모	
			참가국	참가내용
무주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1회('07)	2007. 06. 25 ~ 06. 29 (5일간)	42개국 800명	국내·외 선수 및 임원 포함
	2회('08)	2008. 07. 4 ~ 07. 11 (8일간)	47개국 1,427명	국내·외 선수 및 임원 포함
	3회('09)	2009. 07. 04 ~ 07. 10 (7일간)	40개국 1,200명	국내·외 선수 및 임원 포함
	4회('10)	2010. 07. 03 ~ 07. 06 (4일간)	30개국 1,200명	국내·외 선수 및 임원 포함
	5회('11)	2011. 07. 08 ~ 07. 13 (6일간)	31개국 1,200명	국내 200명·해외 1,000명

참조 : 조직위 내부자료를 참조할 수 없는 관계로 외부자료를 참고함

□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자체 추진 성과 분석

-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태권도 대회 위주의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및 관광 등 다양한 시간 구성을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중추국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했다는 자체 평가
- 참가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한 셔틀버스 운영과 행사평가회를 통한 진행 보완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진행요원 교육에 내실을 기해 원숙한

진행을 선보였다고 자체 평가

-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통해 무주가 태권도공원 조성지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준 계기가 됐다는 자체 평가
- 태권도 관련 세미나와 국제회의 유치에 가능해짐에 따라 체계화·전문화된 교육을 주도해 테마가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도약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자체 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산업연관표에 근거해 분석한 생산유발 효과(음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 등에 대한 지출비용)는 공식지출비용 10억여 원을 비롯해 국내외 참가자들의 개인지출 10억여 원 등 총 20억여 원의 지출비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분석 결과 제시

□ 대회 전반에 대한 분석

- 지난 2006년에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를 유치해 대회를 치러 내며 태권도공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개최하게 됨
-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무주에 조성중인 태권도공원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이 된 대회이다 보니, 국제적인 대회로 치루기 위해서는 사실상 무리가 있었으며, 현재 질적 수준 향상 및 타 시·도 행사와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

- 국제대회로서의 권위와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육성과 운영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 무주군에서도 세계 태권도문화엑스포를 7억5,000만 원 정도 투입된 예산으로 치루면서 경제적인 과급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음
- 세계 태권도문화엑스포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주로 무주 리조트를 중심으로 숙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경제효과가 무주리조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무주군의 판단·분석 결과 기대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 대회 홍보 및 선수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주최 측이 외국선수 및 임원들의 국내 체류 관련 숙박비 전액을 부담해주다 보니 예산절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대회가 거듭될수록 외국인을 비롯한 대회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국제대회로 설명하고 있으나, 1,000여 명 규모의 해외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 2011년 5회 대회 등 록현황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함
 - 특히 러시아 326명, 중국 211명, 미국 170명 등과 같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3개국의 참가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707명으로 전체 해외 선수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대회로서의 위상 저하

- 또한 국내 선수단은 임원진과 선수 101명을 포함하여 200명으로 국내 선수들의 대회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국내 태권도인들로부터 대회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영천 국제클럽오픈태권도대회

대회 개요

대회목적

- 세계 태권도 중주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속 도시이미지 제고
- 산업, 관광 등 세계를 뛰어넘는 틈새 전략으로 지역발전 기여

○ 대회기간 : 2010. 7. 9 ~ 7. 13(5일간), 1회 대회 개최

○ 대회장소 : 경상북도 영천시

○ 대회주최 : 영천시, 한국실업태권도연맹, 경북태권도협회

○ 대회주관 : 국제클럽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예산운영

- 8억(도비 5억, 시비 3억)
- 조직위원회 자체 추진 성과 분석
- 30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파급효과와 영천 이미지 홍보 등 간접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
- 44개국, 275개 클럽, 2,464명이 참가한 세계선수권대회 이상의 규모로 국가대표 선수와 엘리트 선수 위주의 대회가 아닌 나라별 클럽(도장)에서 수련하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클럽대항의 대회로 차별성 있는 대회로 자체 평가
- 3인조, 5인조 단체전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올림픽이나 선수권 대회 등 국가대항전 보다 훨씬 부드럽고 박진감 넘치며 태권도인들끼리 경기와 축제를 동시에 즐기는 대회라는 자체 평가
- 대회 전반에 대한 분석
- 춘천오픈과 코리아오픈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최된 오픈대회로 세계선수권대회 이상의 규모라고 자체 평가를 하였으나, 대회 참가자 모집부터 불안했으며 실제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800여명에 그침
- 대회조직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F) 승인대회임을 홍보하며 국내외 선수들을 참가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참가 수준도 규모도 기대 이

- 하였으며, 그해 6월 말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참가한 선수들의 발길을 잡아 그나마 국제대회로 생색을 낼 수 있었음
- 대회 주최 측은 대한태권도협회(KTA)를 통해 WTF에 대회 승인을 신청하며 좀 더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태권도를 선보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보고했고, WTF도 국제심판과 경기감독관(TD; technical director)을 파견, 승인 대회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음
- 그러나 참가선수들의 성격은 여타 국제대회와 별반 다를 게 없었고, 클럽오픈대회라는 명칭과는 걸맞지 않았으며, 해외의 클럽선수들이 출전한 것도 아니었고 몇몇 국가의 대표선수들이 출전한 대회였음
- 영천 국제클럽오픈태권도대회는 대회가 끝난 후 시민단체로 부터 업자선정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조직위 간부들은 수뢰후 부정처사, 입찰방해 죄로,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영천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함
- 대회 조직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운영 면에서 드러난 슬한 마찰과 문제는 이 대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대회를 주최한 단체들 간에 불거진 심각한 갈등이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음
- 이 대회는 표면적으로는 영천시, 한국실업태권도연맹, 경북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연맹과 춘천오픈대회의 조

직위 관계자들이 주도한 대회였고, 이 두 조직이 주축이 되어 대회 준비에서부터 운영까지 도맡은 대회였음

- 안방에서 대회를 치르면서도 소외당한 경북태권도협회는 대회 시작 전부터 이 대회가 누구를 위한 대회냐며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터뜨렸으며, 경북태권도협회는 실제로 이 대회 어느 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회 기간 경기장에 나타나지도 않을 정도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영천시가 장기적인 지역 홍보의 방안으로 첫 대회를 유치하며 적극성을 보였으나, 경북태권도협회의 반발로 향후 이 대회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 대회 주최 측은 해외 홍보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관건이라는 생각에 영국 브리티시 오픈국제태권도 대회,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태권도 대회와 멕시코 티후아나 세계청소년대회 등에 참석하여 대회 홍보용 리플릿 및 포스터 등을 배부하면서 해외현지 홍보를 실시했고, 국.영문으로 된 대회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과 태권도 관련 홈페이지에 대회 홍보용 자료를 게재하여 대회를 알리는 한편,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각종 지방지 및 태권도대회 관련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 언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 공식대회가 아닌 오픈대회의 특성 상 가장 어려운 점이 홍보라는 점

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홍보 및 선수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어려움은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단의 적은 숫자에서 알 수 있음

- 영천시는 숙박시설과 관광, 교통, 통역인력 확보 등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였고, 외국인들은 침대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호텔급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선수수송 부문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과 영천은 378km의 장거리여서 비용부담이 크며 통역관련 자원봉사자 모집 등에도 애로사항이 발생
- 주최 측이 일부 국가 참가팀에게만 숙식을 제공하고 비행기 티켓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소문이 나돌아 많은 경비를 들여 참가한 다른 나라 팀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음
- 선수단 숙소가 영천시와 경주시로 분리되어 경기장을 오가는 데 불편을 겪게 했던 것도 이 대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경기장이 협소하고 방송사의 녹화중계를 위한 촬영 때문에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한 점도 불만으로 제기
- 이 대회를 앞으로 2년마다 지속적으로 영천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나, 대회 홍보방안을 비롯하여 장기적으로는 국제행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숙박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 해결될 때 비로소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추진대회 적용 검토

□ 이상으로 타 지역에서 창설·개최된 국제 태권도대회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축적되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태권도대회 중 가장 성공한 대회라고 평가되는 춘천오픈 국제 태권도대회부터, 태권도공원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지만, 국제대회로 치르기에 무리가 따르고 대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타 시·도 행사와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와, 2010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여러 갈등과 문제점만을 노출시킨 채 대회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영천 국제클럽오픈태권도대회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 가 창설·개최하려는 대회에서 적용·검토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

1) 춘천 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적용·검토할 부분

- 예산을 어떻게 최소화하여 대회를 운영·유지할 것인지 고민
- 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고민
- 중주국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외국 선수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준비
- 대회의 파급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시켜

갈 것인지 고민

□ 대회 홍보 및 선수유치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

□ 공식홍보 채널을 통한 대회홍보 및 선수유치 강화가 필요

2)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서 적용·검토할 부분

□ 지난 2006년에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유치해 대회를 치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개최하였는데, 대전도 대회 창설 전 기존 공인대회를 유치한 후 태권도와 관련한 대전의 인지도를 끌어 올리고, 공인대회 참가자 및 참가국에게 홍보와 동시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회를 창설하는 방안도 필요

□ 국제대회로서의 권위와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체계의 준비가 필요

□ 대회 홍보 및 선수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준비하여 외국 선수 및 임원들에게 지출되는 불필요한 체제비 부담으로부터 탈피

3) 영천 국제클럽오픈태권도대회에서 적용·검토할 부분

□ 국제대회는 해외 홍보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수립 필요

- 공식대회가 아닌 오픈대회의 특성 상 가장 어려운 점이 홍보이므로 대회 초반 대회 홍보 및 선수유치 방향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
-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과욕보다는 대회 홍보방안을 비롯하여, 장기적으로 국제대회를 치러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숙박시설 및 교통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수준 향상 등에 대한 대비 필요

제 3 장

대안적 대회 개최 검토 및 발전 방안

제1절 대안적 대회 개최 검토

제2절 발전 방안

제3장 대안적 대회 개최 검토 및 발전방안



제1절 대안적 대회 개최 검토

1. 대회 창설 과정의 고려사항

1) 국제대회로서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방안

(1) 인적 인프라 확충방안

- 유소년 대상 태권도 교실 운영
- 태권도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특정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임을 알리고, 태권도에 대한 유소년의 관심을 높이면서 태권도의 역사와 효과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어린이의 성장과 체력증진을 돕는 태권도의 효과를 강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명 태권도 선수와 함께 하면서 태권도에 대한 흥미와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유소년에 적합한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흥미 유발

- 생활체육과 연계한 전문 태권도인 양성
-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과 태권도를 수련하는 유소년 수의 확대는 대회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인적 인프라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 태권도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유소년 태권도층을 확대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
- 유소년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은 전문 태권도 선수 인력 및 유소년 태권도대회에 대한 인적 인프라 확대로 연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문 태권도 선수 및 태권도 경기의 질적·양적 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음



태권도에 대한 유소년의 관심은 전문 태권도 선수 및 유소년 태권도대회에 대한 인적 인프라 확대의 근간

□ 태권도 전공학과로의 진학 및 실업팀 입단 연계망 구축

- <표 10> 대전광역시 태권도 선수 등록 현황에서도 보여지듯이 대전광역시의 선수구조 현황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과 실업팀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선수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선수들이 학업을 이어갈 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대학 졸업 후 전문적인 선수로 활동할 실업팀이 부족하다는 데 원인이 있음
-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2개 대학과 2개 실업팀이 태권도팀을 운영 중이며, 이는 태권도를 지속하기 위해 진학할 대학과 취업할 실업팀이 미약한 지역 내 여건을 보여줌
- 따라서 태권도에 대한 유소년의 관심으로 확대된 인적 인프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학과 실업팀의 창단을 유도하여, 유소년 때부터 우수선수로 발굴된 지역 태권도 선수가 비전을 갖고 태권도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물론, 태권도를 지속할 대학으로의 진학과 졸업 후 취업이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더라도,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지역대학과 실업팀의 태권도팀 설립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 내 노력을 통해 국가대표급 성인선수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대학과 실업팀의 태권도팀 설립 유도를 통한 유소년의 관심으로 확대된 인적 인프라 유지

□ 지도자 교육 및 육성

- 선수 등록 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태권도 지도자들 역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지도자들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태권도 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환경임
- 우수한 유소년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자질 또한 우수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훈련방식에 대한 재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
- 태권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새롭고 효과적인 선수 훈련방식과 기법을 교육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부여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필요

- 경기 진행인원 교육 및 육성을 통한 대회 개최 능력 유지
- 우수한 경기 운영 및 진행을 위하여 경기 진행인원을 확보하여 대회 준비와 진행상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대회 운영능력의 미숙함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책임자를 선임하고 반복적인 리허설을 통하여 경기 진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경우에 따라 타 대회의 경기 진행 방법 등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함
- 주로 대회 운영능력은 경기 측면과 관중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경기 운영능력은 경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경기 진행 상 나타나는 문제이며, 관객 관리능력은 관중의 동원, 관중의 호응, 관중의 이동 등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음
-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인들의 참여가 최대한 확

대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자원봉사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과 운영이 각종 대회 일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회 운영의 경험이 누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태권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시 자원봉사단을 조직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심리적 만족도와 대회 운영능력의 지속성을 도모
-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 내 태권도 자원봉사 조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자원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태권도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대회의 상시 진행인원 확보로 우수한 경기 운영 및 진행을 통한 경기 대회 운영능력의 지속성 도모

- 관련 조직 보완 및 개편
- 현재 대전광역시의 태권도 관련 조직은 실제로 수행하고 있고 진행되어야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나, 임원 대부분이 겸직인 경우가 많아 업무가 과중되거나 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어 대회가 갖고 있는 위상과 대회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충원과 보강이 필요한지 평가 필요
- 태권도와 대회에 대한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대

외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상근 인력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정확하게 태권도 관련 조직을 진단하고 각 단위 조직의 사업내용을 적정한 규모로 재편할 필요



태권도 관련 조직의 진단 및 개편을 통한 대회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원활한 추진 모색

(2) 물적 인프라 확충방안

□ 시설 점검 및 보수(경기시설)

○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태권도와 관련하여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시설 규모를 갖춘 곳은 <표 9> 대전광역시 구기체육관 현황에서도 보여지듯이 구기체육관 2개소를 제외하고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기장 신설·확충은 향후 추이를 보며 필요성을 판단

○ 그러나 국제규모의 태권도 대회 개최가 가능한 구기체육관 2개소를 포함하여 체육시설들을 지난 2009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대부분 보수·보강을 마친 상태로 종합대회가 아닌 태권도 단일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임

○ 현재의 시설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

고, 구기체육관 2개소에는 상시 실전대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도구의 배치가 필요

○ 보조경기장 및 훈련장의 경우에도 각 구별로 위치한 각급 기관, 학교 등의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면 대회 진행 및 운영에 무리가 없는 상황임



대회 개최가 가능한 기존 시설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시설 점검 및 보수(숙박시설)

○ 대전광역시는 1993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중심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박람회 기간 동안 행사장소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국제적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도시

<표 12> 광역자치단체 관광사업 숙박시설(호텔)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관 광 호 텔	특1급	업체수	17	6	3	3	1	1	2
		객실수	8,701	2,469	696	1,020	120	174	495
	특2급	업체수	26	5	4	6	2	2	0
		객실수	6192	783	534	1380	198	394	0
	1급	업체수	33	12	4	2	6	7	0
		객실수	3820	1155	210	149	363	453	0
	2급	업체수	21	12	0	11	6	7	2
		객실수	1309	585	0	506	252	257	146
	3급	업체수	14	13	0	8	1	4	1
		객실수	720	1321	0	330	44	193	75
	등급 미정	업체수	20	3	11	11	4	3	2
		객실수	1408	416	663	493	174	486	65
	계	업체수	131	51	22	41	20	24	7
		객실수	22,150	6,729	2,103	3878	1,151	1,957	78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12. 31 기준

- 우리나라 116개 온천 지구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관광인프라를 갖춘 온천관광특구인 유성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전역에는 호텔, 유스호스텔, 여관, 모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일종목인 태권도 국제대회의 방문객 수용에는 큰 무리가 없음
- 지역 내 호텔 등을 비롯한 숙박업소에서도 태권도 대회 방문으로 인한

방문객에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낡은 시설의 리모델링과 보수·보강을 통하여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필요



시설의 리모델링과 보수·보강을 통한 숙박객에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

- 관련 예산 확충
- 국제 유소년 태권도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자원 투자가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대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실행되어야 함
- 공식적인 체육예산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차원의 유소년 태권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지역 내 체육계 및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기금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대전광역시와 협의·진행할 필요

<표 13>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단체 예산총액(A)	2010년도 체육예산(B)	B/A×100
서울특별시	28,928,207	203,081	0.70
부산광역시	8,242,970	128,660	1.56
대구광역시	5,553,019	106,126	1.91
인천광역시	6,671,477	80,889	1.21
광주광역시	3,923,372	39,619	1.01
대전광역시	3,890,520	63,138	1.62
울산광역시	3,206,557	68,002	2.1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체육백서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국고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 및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161조 7,407억 원의 1.51%인 2조 4,344억 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재정 상황, 체육시설 건설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대전광역시는 2010년 전체 예산의 1.62%임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계획에 따른 대회 자원 마련 노력 필요

- 본 연구는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용적 범위에서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 창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태권도 단체 및 연구기관의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태권도 대회를 창설하여 개최 중인 타 시도 자치단체 담당자, 관계 기관 및 관련협회 관계자와의 토론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내용들과 비교검토하였음
- 그리고 비교검토된 내용들을 기본 구상에 반영코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본 계획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2)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

(1) 인적 인프라 확충방안

- 현재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대전광역시 소속 유소년 선수는 120명이지만, 대전광역시에 등록·신고된 297개소의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중인 유소년의 수는 대략 1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대회 주체인 유소년 태권도 인프라는 충분한 상태로 판단
- 유소년 선수를 지도·육성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수훈련 방식과 기

법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대전광역시, 태권도 관련 단체의 지원과 태권도 자원 봉사조직의 활용으로 대회 개최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태권도 관련 조직의 진단과 개편을 통해 대회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운영조직 시스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물적 인프라 확충방안

○ 태권도 경기가 가능한 투기체육관이 대전광역시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기체육관 2개소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국제규모 태권도 대회의 개최가 가능한 구기체육관 2개소는 지난 2009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수보강을 끝마친 상태로 태권도 단일종목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1993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국내외 방문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던 숙박시설은 대회 기간 동안의 방문객 수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대회 개최 및 운영 관련 예산 확보는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계획을 세우고 대전광역시의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탈피한, 새로운 차원의 대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2. 기존 대회 유치

1) 타 시·도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 의견 검토

(1)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 방문 및 면담 순서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공원과

대전광역시 체육회

강원도 춘천시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대전광역시 태권도협회

(2) 토론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 검토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공원과

○ 대회의 실효성

- 무주를 알릴 수 있는 대회로서의 역할

○ 대회의 과급효과

- 실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움

○ 대회의 차별화 방안

- 외국인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문화엑스포와 연계
- 문화엑스포를 비롯하여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태권도협회장배 품세 선수권대회, 웰빙태권페스티벌, 태권도공원배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

○ 기타

- 대회는 태권도 공원의 건립 이후 향후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대회의 개최 비용 대비 효과는 홍보 면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나, 경제적 파급효과 면에서는 대회의 소요비용을 수익차원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답변
- 무주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태권도 대회 위주의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및 관광 등 다양한 시간으로 구성
- 관련자료에 의하면 지역산업연관표에 근거 분석한 생산유발효과(음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 등에 대한 지출비용)는 공식지출비용 10억여 원을 비롯해 국내외 참가자들의 개인지출 10억여 원 등 총 20억여 원의 지출비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
- 외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태권도 문화산업화의 원천이 될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예술 창작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 관광 상품 개발과 태권도를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

-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를 유지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 한 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개최함
- 무주태권도문화엑스포는 겨루기 등 이외에 품새와 격파, 세미나 등 보여주는 축제로 육성하며 타 태권도 대회 등과 차별화로 정체성 확보를 위해 보여주고 참여하는 기승전결 테마가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자 노력

□ 대전광역시 체육회

- 만일, 대회를 개최한다면 비용만 투입되는 홍보성 대회는 의미가 없으며, 굳이 개최한다면 춘천대회 스타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엘리트 선수대회로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생활체육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시키고, 엘리트 대회와 생활체육을 병행함으로써 가족적인 대회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만일, 대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를 엘리트 위주 대회로 개최해서는 의미가 없으며, 춘천처럼 엘리트 대회와 생활체육이 혼합된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시민들에게 와 닿는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대회 명칭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유소년 대회는 시민들에게 어필되기가 어려워 보이며 흥행과 동시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함

- 마찬가지로 대전의 홍보에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성공한 사례도 없음
-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첫째, 바뀐 명칭의 대회 안에 유소년 대회를 한 part로 넣는 방법 둘째, 검증 차원에서 기존 대회를 대전에 유치하는 방법과 그 대회 안에 유소년 대회를 한 part로 넣는 방법 등을 고려
- 강원도 춘천시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 태권도 공원의 무주 결정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대회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음
- 대회를 개최한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며,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태권도 대회 본질에 초점을 둘 것인지가 중요
- 공무원과 연구기관에서는 이 둘 모두를 고려하려 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며, 만일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경험상 볼 때 우선은 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이 흘러 대회가 자생력이 생기고 정착단계에서 부수적으로 경제적 효과와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
- 대회를 굳이 개최하고자 한다면 대회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 이전에 기존 고유 대회를 지역에 유치하여 대회를 개최해본 이후,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상황과 대회 유치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음

- 경제적 효과를 논하자면 연구에 의해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수를 제시할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경제적 효과는 설득력 있게 와닿는 계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품세, 격과 등과 같은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특히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첫째, 전국 규모 대회를 창설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일반 대회를 유치하는 방법과 둘째, 세계 연맹 대회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 2000년도에 창설해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전체 참가자 중 해외 참가자가 50%에 육박하는 1200여명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
 - 태권도 중주국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외국 선수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태권도 선수들이 관광객이

아닌 이상, 그들의 기량향상이나 성취감에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이 제공 될 수 있어야 함

- 태권도 용품 전시판매, 문화행사, 태권도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와 대금연주와 소고춤, 전통농악, 레이저쇼, 태권무, 격파시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좋은 호응
- 대회를 추진하면서 점점 시민들의 열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열기가 식어가고 있고, 시민들이 대회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

□ 대전광역시 태권도협회

- 현재 많은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대회를 개최된다면 정말로 내실 있는 대회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고려
- 현재 세계연맹에서 공인 받은 대회도 국내잔치로 끝나는 현실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라는 개념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개념
- 대회를 창설한 이후 대회가 활성화가 안 되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좀 더 준비를 한 이후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대안
- 대전 태권도협회는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를 필요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현실적 관점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대회 후 성과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

- 대부분 태권도 대회가 참가율이 저조하고, 지원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일들을 매년 반복해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
-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엘리트 대회가 아닌 춘천대회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국제대회보다는 오히려 국내 대회가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
-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검증 차원에서 기존 대회를 대전에 유지하는 방법과 그 대회 안에 유소년 대회를 한 part로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대회를 주최하면서 시민들과 태권도인들의 반응을 파악한 이후 대회 창설을 모색하는 방법도 고려
- 일선 태권도인들은 대회에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용 훈련장의 설립이 효과적이며, 향후 전지 훈련지로서 대전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방문한 팀 위주로 초, 중, 고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봄
- 태권도 전용 훈련장의 경우 초기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제반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실속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제 전지 훈련장의 필요성은 해외에 파견된 충청권 태권도인들이 국내에 방문해도 전지훈련장이 없어서 유성구청, 여성실업팀, 충남대, 대전체

고 등에서 불편하게 훈련을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음

- 국제 전지 훈련장의 경제적 효과를 볼 때 1년 내내 전지 훈련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경기에 참여하였을 경우와 달리 전지훈련에 참석한 선수들은 시간 면에서 자유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광과 쇼핑 등을 하면서 대전에 경제적 유발효과를 낼 수 있음
- 대전시에서 건립비용까지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2000~3000평 정도의 부지만이라도 제공해 준다면, 태권도인들이 자비를 들어서라도 국제 전지 훈련장을 건립할 의사가 있음
- 대전은 유성온천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태권도 전지 훈련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며, 국제 전지 훈련장을 건립한다면 집합시설로서 외국인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알차게 운영할 수 있으며, 대전을 태권도 전지훈련지로서 알리기에 충분함
- 현재 대전의 태권도 발전에서 시급한 것은 시민들에게 태권도를 알리고,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모순을 무릅쓰고 대회 창설을 하기보다는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국제 전지 훈련장을 대전에 건립하여 시에 입장에 서는 명분을 살리고, 태권도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3) 의견 검토 결과

□ 대회의 성격

-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와의 토론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회의 성격을 유소년 대회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엘리트 대회와 생활체육을 병행한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형태로의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



엘리트 위주 유소년 대회에서 엘리트 대회와 생활체육이 혼합된
방식으로 변경 고려

□ 대회 명칭의 변경

-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와의 토론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라는 개념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와 닿는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회의 명칭을 대회의 성격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



홍행과 동시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명칭 변경 고려

□ 대회 개최 방안

-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와의 토론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대회의 명칭과 성격이 보편적으로 변경된 대회를 창설하는 방법, 검증 차원에서 기존 대회를 대전에 유지하는 방법, 유지한 대회 안에 유소년 대회를 한 part로 넣는 방법, 바뀐 명칭의 대회 안에 유소년 대회를 한 part로 넣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 시민들과 태권도인들의 반응을 파악한 이후 대회 창설을 모색하는 방법 고려



기존 고유 대회를 유지하여 시민들의 반응과 개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파악 후 대회 창설

□ 대회의 차별성

-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와의 토론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회의 겨루기 이외에 태권도 용품 전시판매, 문화행사등의 다양한 부대행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회의 차별성을 부각



보여주고, 참여하고, 감상하는 테마가 있는 축제가 있는 대회

□ 대회의 과급효과

-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와의 토론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시민들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와 닿는 계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대회의 효과는 홍보 면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나 경제적 과급효과 면에서 대회의 소요비용을 수익차원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있음



대회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단일종목 대회로서 경제적 효과 측정의 어려움 존재

2) 기존 대회

- (1) 2011년도 국내·국의 연간 대회일정 및 현황

월	일 자	행 사 명	장 소
1월	21(금)~27(목)	제6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제주, 한라체육관
2월	24(목)~25(금)	제23회 FAJR 이란혁명기대회	이란
3월	14(월)~21(월) 26(토)~27(일)	제6회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 제7회 한국중고연맹회장배 전국품새대회 (38회중고연맹회장기와 분리)	경남, 고성 경기, 시흥
	23(수)~30(수)	제38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겸 제3회 전국대학품새대회	전남, 영광
	28(월)~4/2(토) 30(수)~4/1(금)	2011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중등부) 제5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전북, 남원 국기원
4월	9(토)~13(수)	제21회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남여고교태권도대회	용인대
	15(금)~17(일)	제7회 한국체육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강원, 인제
	18(월)~27(수)	제38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충남, 공주
5월	1(일)~6(금) 6(금) 13(금)	2011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1년도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태권도경기 2011년 서울교육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경북, 경주 전남, 초당대 서울교대
	11(수)~18(수)	제13회 광주5.18민중항쟁추모기념시장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광주, 빛고을체육 관
	14(토)~17(화)	제8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및 제6회 WTF 세계품새대회 파견 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	전북, 무주
	28(토)~29(일)	제6회 동아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동아대
	28(토)~30(월)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중등부)	경남, 고성

6월	2(목)~6(월) 4(토)~6(월)	제10회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 제8회 계명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경북, 안동 계명대		
	8(수)~15(수) 20(월)~25(토) 24(금)~26(일)	2011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고등부, 일반부) 제23회 경희대학교총장기 전국남여고교태권도대회 2011년도 전국어린이태권왕대회	전남, 강진 강원, 홍천 경기, 용인		
	7월	8(금)~13(수) 14(목)~19(화) 16(토)~24(일) 22(금)~24(일) 29(금)~31(월) 30(토)~8/5(금)	제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제8회 춘천오피스텔태권도대회 제5회 CISM 세계군인대회 제9회 우석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제6회 WTF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제41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2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	전북, 무주 강원, 춘천 브라질, 리오 우석대 러시아블라디보스톡 강원, 태백	
		8월	6(토)~7(일) 8(월)~20(토) 14(일)~15(월) 18(목)~23(화) 30(화)~9/1(목)	제34회 연세대학교총장기 전국남여고교태권도대회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중고태권도대회 제9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제26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	경기, 포천 강원, 태백 경북, 안동 중국, 쉐젠 국기원
9월			21(수)~28(수)	제34회 한국대학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및 품새대회	강원, 영월
10월			1(토)~3(월) 7(금)~11(화) 22(토)~28(금)	2011 전국어린이꿈나무태권도대회 제92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제46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2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	충북, 충주 경기, 성남 강원, 영월
			11월	8(화)~14(월)	제20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2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
		12월	9(금)~12(월)	2011년도 전국남여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겸 2012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	영국, 런던

(2)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현황

- 현재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구는 200개국 7천만 명이며, OECD 30개국에 수련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수 200개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 국제스포츠연맹(IF) 가운데 8번째로 회원국이 많은 단체임
- 미국의 경우 태권도장이 3만5천여 개에 수련생 1천만여 명, 이란은 약 3,800개의 도장에서 150만여 명의 태권도 수련생이 있음
- 2011년 7월 오세아니아 3개국이 세계태권도연맹의 새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오세아니아태권도연맹 회원국 수는 19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다른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수는 아프리카태권도연맹 45개, 아시아태권도연맹 43개, 유럽태권도연맹 49개, 팬아메리카태권도연맹 44개 등임
- 각 지역별 회원국 현황은 다음과 같음



아프리카태권도연맹 = 45개국(국가명, 연맹가입년도)

Algeria (2004)	Angola (2001)	Benin (1978)
Burkina Faso (1981)	BURUNDI (2010)	Cameroon (2002)
Cape Verde (2000)	Central Africa (1999)	Chad (2000)
Comoros (2003)	Congo (1993)	Cote d'Ivoire (1975)
DR Congo (2005)	Egypt (1979)	Equatorial Guinea (1997)
Ethiopia (2003)	Gabon (1978)	Gambia (2007)
Ghana (1981)	Guinea (2001)	Kenya (1990)
Lesotho (1990)	Liberia (2001)	Libya (1979)
Madagascar (1993)	Malawi (2007)	Mali (2000)
Mauritius (1978)	Morocco (1986)	Mozambique (2005)
Niger (1999)	Nigeria (1988)	Rwanda (2011)
Sao Tome & Principe (2004)	Senegal (1995)	Somalia (1997)
South Africa (1991)	Sudan (2003)	Swaziland (1985)
Tanzania (2003)	Togo (1996)	Tunisia (1978)
Uganda (2007)	Zambia (2006)	Zimbabwe (1997)



아시아태권도연맹 = 43개국(국가명, 연맹가입년도)

Afghanistan (1993)	Bahrain (1977)	Bangladesh (1999)
Bhutan (1985)	Brunei Darussalam (1973)	Cambodia (1995)
China (1995)	Chinese Taipei (1974)	Hong Kong (1978)
India (1979)	Indonesia (1975)	Iran (1975)
Iraq (1984)	Japan (1981)	Jordan (1979)
Kazakhstan (1993)	Korea (1973)	Kuwait Judo & Taekwondo Federa... (1977)
Kyrgyzstan (1993)	Laos (1996)	Lebanon (1978)
Macao (2002)	Malaysia (1975)	Mongolia (1991)
Myanmar (1990)	Nepal (1983)	Oman (2010)
Pakistan (1977)	Palestine (1989)	Philippines (1973)
Qatar (1977)	Saudi Arabia (1977)	Singapore (1975)
Sri Lanka (1983)	Syria (2000)	Tajikistan (1995)
Thailand (1975)	Timor-Leste (2009)	Turkmenistan (2000)
United Arab Emirates (1994)	Uzbekistan (1992)	Vietnam (1989)
Yemen (1988)		



유럽태권도연맹 = 49개국

Albania (1995)	Andorra (1987)	Armenia (1996)
Austria (1973)	Azerbaijan (1995)	Belarus (1992)
Belgium (1975)	Bosnia & Herzegovina (1993)	Bulgaria (1990)
Croatia (1992)	Cyprus (1982)	Czech Republic (1995)
Denmark (1975)	Estonia (1998)	Finland (1979)
France (1975)	Georgia (1995)	Germany (1973)
Great Britain (1977)	Greece (1985)	Hungary (1989)
Iceland (1991)	Ireland (1983)	Isle of Man (2006)
Israel (1981)	Italy (1977)	Latvia (1992)
Lithuania (1992)	Luxembourg (1993)	Macedonia (2001)
Malta (1995)	Moldova (1995)	Monaco (1996)
Montenegro (2007)	Netherlands (1976)	Norway (1977)
Poland (1979)	Portugal (1976)	Romania (1991)
Russia (1991)	San Marino (1994)	Serbia (1975)
Slovakia (1994)	Slovenia (1993)	Spain (1975)
Sweden (1977)	Switzerland (1977)	Turkey (1975)
Ukraine (1993)		



오세아니아태권도연맹 = 19개국

American Samoa (2007)	Australia (1975)	Cook Islands (2011)
Fiji (1983)	French Polynesia (1975)	Guam (1986)
Kiribati (2006)	Marshall Islands (2007)	Micronesia (2011)
Nauru (2011)	New Caledonia (2010)	New Zealand (1975)
Palau (2011)	Papua New Guinea (2003)	Samoa (1997)
Solomon Islands (1999)	Tonga (2001)	TUVALU (2011)
Vanuatu (2004)		



팬아메리카태권도연맹 = 44개국

Antigua & Barbuda (1998)	Argentina (1976)	Aruba (1992)
Bahamas (1997)	Barbados (1986)	Belize (1997)
Bermuda (1983)	Bolivia (1977)	Brazil (1975)
British Virgin Islands (1998)	Canada (1975)	Cayman Islands (1989)
Chile (1989)	Colombia (1976)	Costa Rica (1984)
Cuba (1993)	Dominica (1999)	Dominican Republic (1983)
Ecuador (1973)	El Salvador (1987)	Grenada (1995)
Guadeloupe (2011)	Guatemala (1991)	Guyana (1995)
Haiti (1992)	Honduras (1979)	Jamaica (1977)
Martinique (2011)	Mexico (1973)	Netherlands Antilles (1979)
Nicaragua (1991)	Panama (1989)	Paraguay (1982)
Peru (1977)	Puerto Rico (1977)	St. Kitts & Nevis (1998)
St. Lucia (1998)	St. Vincent & The Grenadines (1992)	Surinam (1977)
Trinidad & Tobago (1983)	U.S.A. (1975)	Uruguay (1990)
Venezuela (1976)	Virgin Islands (2002)	

(3) 국기원 : 세계태권도한마당

□ 개요 : 세계 200개국 7,000만 태권도 수련생을 기반으로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을 모토로 한 본 대회는 태권도 최대의 축제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대회 위상을 높여 가고자 함

□ 개최의의

- 기존 대회보다 규모 확대와 대회 위상을 높이는 대회 구축
- 지자체와의 공동 주최를 통한 태권도 행사의 세계화와 전국화
-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시설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

□ 행사구성

- 개최식/폐회식 :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
- 세계 태권도 한마당 : 11개 종목 38개 부문 경연대회
- 부대행사 : 전시, 체험, 세미나, 공연, 민간교류, 지역문화체험 등

□ 대회 소요예산 : 8억

지방자치단체	국기원	합계
5억	3억	8억

□ 최근 대회 참가 현황

개최년도	참가현황		
	국내선수	해외선수	장소
2006	2,799	394	전북 무주
2007	3,477	741	경기 수원
2008	425	1,172	미국 LA
2009	3,323	614	충남 당진
2010	2,197	418	국기원

□ 타 대회와의 차별성

구분	일반 태권도 대회	세계태권도한마당
경연종목	겨루기, 품새 위주의 경연	12개 종목 41개 부문 : 격파, 품새, 태권체조, 팀 대항경연, 시범경연 등
참가자격	국기원 단종 소지자 외	출전국 국적, 영주권 소지 및 국기원 유품(단) 소지자
참가구분	시니어, 주니어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특징	겨루기, 품새 등 기본에 충실한 대회	태권도의 다양한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로 겨루기 이외의 태권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경연



다양한 종목과 전 연령층이 함께 하는 진정한 태권도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성공전략

- 국제 교류적 측면 : 국제대회,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 해외 홍보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총력
 - 국제적인 교류를 위한 계기 마련
 - 해외 참가국 선수 및 관광객을 배려한 행사 구성 및 운영
- 문화적 측면 : 태권도를 매개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 문화의 만남연출
 - 태권도 중주국의 문화요소, 문화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문화와 축제의 도시로
 - 의 통합적인 인식 유도
 - 태권도라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와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
- 지역 공동체적 측면 : 지역민들의 소속감과 생활의 활력 제공
 - 지역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 제공
 -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개최도시로서의 주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자긍심 부여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한태권도협회 :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대회목적

-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태권도 수련인구의 확대

- 중주국 태권도 기술 및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기회제공
- 세계태권도인의 국제 교류 활성화
-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태권도 및 국가브랜드 강화

대회특징

- 전 세계 태권도 오픈 대회 중 최고권위의 대회
- 평균 50여 개국 2,000여명의 선수단 참가
- 세계 유명선수 대거 참가를 통한 재미있는 경기
- 경기와 페스티벌을 동시에 진행하는 글로벌 태권도 축제
- 마스크 관심도 증가에 따른 최적의 홍보효과

최근 대회 참가 현황

개최년도	참가현황		
	겨루기	품새	총 참가인원
2005, 서울	21개국, 289명	12개국, 126명	821명
2006, 서울	36개국, 381명	57개국, 584명	1,062명
2007, 인천	32개국, 432명	12개국, 126명	966명
2008, 수원	32개국, 891명	16개국, 402명	1,293명
2009, 인천	43개국, 1,554명	29개국, 312명	1,866명

대회 소요예산 : 9억

지방자치단체	대한태권도협회	합계
6억	3억	9억

- 대회 유지 기대효과
- 최우수 스포츠 경영도시 입지 강화
- 도시 친밀감 형성
- 대전시민의 자긍심 고취
- 국제대회 운영경험 축적
- 대전광역시 인지도 상승에 따른 홍보 파급효과

제2절 발전방안

1. 대회 효과 극대화 방안

- 권위 있는 태권도 대회 및 국제대회의 지속적 유치
- 대회 및 행사 기간 동안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홍보관으로 활용하여 세계 태권도인에게 태권도의 중심지로서 대전을 적극 홍보
- 태권도 대회 개최 및 인프라를 활용한 기타 국제대회 유치
- 태권도 관련 학회 및 학술행사 진행
- 태권도 학회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로 태권도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태권도 대회의 연계성 구축
- 태권도 수련 및 교육의 장 제공
- 태권도와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태권도 상징 공간 설립을 통해 태권도인들이 상시 방문하여 심신수련과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마케팅 활용
- 참가선수 및 임원 대상 과학체험 관광코스 투어 제공
-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임원 대상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체험 투어 시행

○ 과학체험 투어 대상지로는 엑스포과학공원, 국내 박사급 인력의 집결지 연구단지, 테크노벨리 등을 포함하여 구성

□ 대회 사진전 및 홍보전 주최

○ 전문체육에 대한 집중 육성 결과 선수들과 일반 시민들의 괴리가 발생하고 참여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관람하는 스포츠가 강조되면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저조

○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친밀한 생활체육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

○ 태권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사진전과 홍보전을 적극 활용

○ 전시 장소는 대전광역시청, 5개 구청, 대회가 개최되는 구기체육관, 월드컵 경기장, 지하철 역사, 대전역, 서대전역, 대전소재 대학 등으로 홍보의 상시성과 집중도를 높이는데 주력

○ 태권도를 매개로 한 역동적인 사진전과 태권도 대회와 관련한 홍보 내용을 인상 깊은 매체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태권도 대회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리감을 극복하고 다양한 생활스포츠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함

□ 가칭, “대전 태권도 발전연구단”, TF팀 구성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체육지원과,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등을 주축으로 TF팀을 상설화 운영

○ 대회 준비관련, 시설 관련, 각 기관별 유기적 협조체제 지원, 대회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전략 방안 도출, 기타 지원업무 전반 등에 대한 역할 수행

2. 대회 차별화 방안

□ 태권도 용품 박람회 개최

○ 국내외 태권도 용품 제조업체의 상품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력 있는 국내 태권도 용품업체를 육성하고 태권도 용품의 일반화에 기여

○ 태권도 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과 함께 유명브랜드 스포츠 용품이 함께 전시되어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태권도 용품을 비롯한 스포츠 용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과학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의 장 제공

○ 신기술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장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만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새로운 태권도 용품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태권도 동작을 시뮬레이션함

으로써 직접 체험하고, 분석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야기 꺼리가 있는 태권도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테마가 있는 태권도 대회 개최

- 밀폐된 경기장 안에서 반복되어 진행되는 태권도 경기의 특성 상 일반인의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겸비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태권도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를 높임
- 다양한 테마 별 태권도 경기와 시연을 통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와 결합된 태권도 행사를 통하여 시민과의 거리감을 좁힘
- 태권도 경기 자체보다는 과학의 메카 사이언스 페스티벌, 대전충청권 대백제 역사 및 문화 축제, 국방의 거점 계룡대 벤처국방마트 등과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대회일정 및 장소를 조정함으로써 가족단위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선사
-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태권도의 결합이라는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테크노, 로봇 태권시범 등을 시연, 대백제 역사 및 문화 축제에서는 전통과 태권도의 결합이라는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술 태권시범 등을 시연, 벤처국방마트에서는 남여 군인들의 군무 태권 퍼레이드를 시연함으로써 대회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선사
- 단조로울 수 있는 태권도 대회의 단점을 과학기술과 문화자원을 통하여 극

복하고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태권도 경기에 가족이 함께 하는 휴식 또는 레저로서의 태권도라는 기능을 결합

□ 태권도의 e-Sports 게임화

-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를 게임 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게임을 통해서 태권도의 자세 및 동작, 규칙 등을 익히고 친숙하게 되는 계기
- 태권도 경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제 경기 방식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경기장의 현실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배경 제공
- 시민들의 태권도 규칙에 대한 이해와 선수들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각종 실제 태권도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음

□ 태권도인 통합 컨퍼런스 개최

- 국제컨벤션도시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MICE산업을 향후 핵심산업으로 선정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으로 DCC 컨벤션 인프라를 활용하여 태권도인들에게 화합의 장 제공
-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여러 단체로 분열된 조직을 대전 태권도 대회를 계기로 매 대회마다 태권도인들을 하나로 이끌어 내는 뜻 깊은 행사의 장 마련

- 통합 컨퍼런스에는 태권도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태권도와 관련된 공통의 주제로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각 섹션별 부문회의를 이어서 실시함으로써 분열된 태권도인들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이벤트 제공

제 4 장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제4장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 창설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대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계획내용을 검토·평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에 있음
- 성공적인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 창설의 추진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관련 계획의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세부적 계획 수립 또는 대안적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대회 창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관련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관계자 면담, 관계기관·관련협회 관계자 토론회 및 면담 등을 통해 대회 창설 추진의 쟁점과 기본 방향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대회 창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제언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인적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대전광역시 소속 유소년 선수는 120명이지만, 대전광역시에 등록·신고된 297개소의 개별 태권도장에서 수련중인 유소년의 수를 감안했을 때 유소년 태권도 인프라는 충분한 상태로 판단되며, 대전광역시, 태권도 관련 단체의 지원과 태권도 자원 봉사조직의 활용으로 국제대회의 창설과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물적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제규모 태권도 대회의

개최가 가능한 구기체육관 2개소는 지난 2009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수보강을 끝마친 상태로 태권도 단일 종목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1993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국내외 방문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던 숙박시설 또한 대회 기간 동안의 방문객 수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와의 토론회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회의 성격을 유소년 대회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엘리트 대회와 생활체육을 병행한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됨
- 넷째,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와의 토론회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회명칭과 관련하여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라는 개념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와 닿는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회의 명칭을 대회의 성격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됨
- 다섯째,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와의 토론회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회 개최 방안과 관련하여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대회의 명칭과 성격이 보편적으로 변경된 대회를 창설하는 방법, 검증 차원에서 기존 대회를 대전에 유치하는 방법, 유치한 대회 안에 유소년 대회를 한 부분으로 넣는 방법, 바뀐 명칭의 대회 안에 유소년 대회를 한 부분으로 넣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 시민들과 태권도인들의 반응을 파악한 이후 계획한 국제대회를 창설하는 방법이 바람직스럽

다고 판단됨

□ 여섯째,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와의 토론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회의 차별성과 관련하여 대회에서 거루기 이외에 태권 경연 등의 태권 퍼포먼스, 태권도 용품 전시판매, 전통민속공연 및 문화행사, 관광지 투어, 축제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회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태권도 대회를 보여주고, 참여하고, 감상하는 테마가 있는 축제와 같은 대회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됨

□ 일곱째, 자치단체·관계기관·관련협회와의 토론 및 면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회의 파급효과는 시민들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와 닿는 계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음. 대회의 효과는 홍보 면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나 경제적 파급효과 면에서는 대회의 소요비용을 수익차원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있음을 인지하고, 만일 대회를 개최한다면 우선은 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이 흘러 대회가 자생력이 생기는 정착단계에서 부수적으로 경제적 효과와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됨

참 고 문 헌

김성애, 이용재(2006),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지역내 육상분 조성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송은정(2010), 「2011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과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관광사업 숙박시설 현황」(201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사회적 효과분석」(2004), 체육과학연구원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추진방안 연구」(2007), 전북발전연구원

「2011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11),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1),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체육대회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2010), 체육과학연구원

「종합계획 제4회 KOREA OPEN 춘천국제태권도대회」(2003), KOREA OPEN 춘천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장기 계획」(2006),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실태 및 경제적효과 분석 연구」(2010), 체육과학연구원

「한국의 체육지표 2010」(2010),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유치 제안서」(2011),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2008), 문화체육관광부

「2009 체육백서」(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2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유치 제안서」(2011), 국기원

정책연구보고서 2011-14

국제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대회
창설 및 발전방안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1년 9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TEL FAX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